

# 태국/싱가폴 에이즈 기관 탐방기

박 원 주 | 본화 부산사회 사무국장

## 태국

### >> 태국 적십자사의 익명검사소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AIDS 담당자와 내가 태국과 싱가포르의 에이즈관련 기관들을 방문한 것은 5월 중순이었다. 태국은 1984년 최초로 1명의 환자가 외국에서 감염되어 말기환자로 귀국한 이래 약 20년에 걸쳐 발생한 감염인 수가 1백만에 달하게 되었다. 1991년 최초의 익명검사소가 개설되어 전국적으로 100 여개의 익명검사소가 설립되었고 철저한 익명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적십자진료센터는 왕실 자체운영, 그리고 세계 NGO와 일반기업체의 후원금으로 충당되는데, 접수실, 상담실, 진료실, 임상검사실로 나뉘어 있었다. HIV검사 건수는 1개월에 800~1,000건이며 이중 약 16%가 양성으로 판정된다. CD4 검사는 6개월에 1회 실시하며 검사비는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이었다. 상담은 내방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1년에 1,706건 실시한다. 태국의 에이즈 감염인은 100만 명 정도이며 마약 주사가 15~20%, 성감염이 72~82%, 모자감염이 1만5천~2만5천 건에 달한다.



태국적십자사에서의 브리핑

### >> 감염인 단체 (Wednesday Friend's Club)

수요일에 에이즈 검사결과를 알게되어 명명된 이름으로 회원이 총 2,000명 정도였다. 이 클럽의 설립 목적은 감염인들 간의 친목도모, 감염인들을 위한 정신적/심리적 지원, 감염인들을 위한 권익보호, 에이즈 예방 및 홍보활동이며 drop-in-center(감염인 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 >> Wat Phra Baat Nam Phu, Lopbri

공학박사인 스님이 HIV/AIDS 환자를 위해 1992년에 설립하였으며 약 2,550평 규모에 중증환자를 위한 300 여개의 병상들과 경미한 환자를 위한 싱글, 더블 형태의 병동으로 나뉘어 있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총 196명의 환자가 기거하고 있었고 치료와 간호서비스는 물론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6개 구역 즉 남자병동, 여자 병동, 가족병동, 스님 숙소, 관리사무실 그리고 이곳을 찾는 많은 방문객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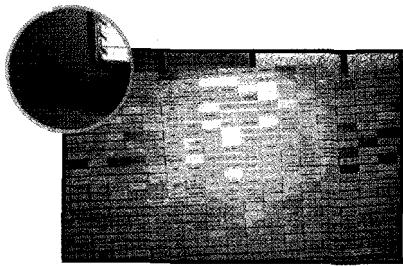
매춘으로 사망한 여성의 생전 사진과 미이라

내부는 질서정연하고 청결해 보였으며 주민, 학생들의 방문은 언제든지 허용되었고, 에이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30평 크기의 방에 에이즈로 사망한 환자 6명의 시신을 유리관 안에 미이라로 보관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 다른 방에는 지난 11년 동안 이 곳에서 에이즈로 사망한 10,000구의 시신을 화장한 후 남은 뼈가루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었다.

39명의 중증 AIDS환자들이 있었고 때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뺨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애치로운 환자들을 볼 때 마음이 심히 괴로웠다.

이들은 간호사나 자원봉사자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도 전혀 할 수 없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는 등 정성스럽게 간호하고 있었다.



생전 게이였던 에이즈 환자의 미이라모습과 에이즈 사망자의 유골함

증상이 조금 나은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는 89명의 환자가 있었으며 1만 여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입소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한다.

200여명에 달하는 환자분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 의사 한 분이 진료를 하고 있었고 간호사분 포함하여 자원봉사자가 70명에 달하였다. 특히 네덜란드인 인 간호사와 자원봉사자가 휠체어에 환자를 태워 산책하는 모습에서 인종과 국가를 초월한 숭고한 박애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동안 정부와 여러 자선기관, 외국 등에 지원을 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재정적인 고충이 크며 특히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10%명의 환자들을 단 한 명의 의사가 돌보고 있다니 그 어려움을 말로 다하기 힘들어 보였으며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금일봉을 전하였다.

### >> Action For AIDS

우리는 5월 21일 싱가포르의 대표적 에이즈민간단체인 Action For AIDS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약 20평형 규모에 사무실, 식당, 방들이 있고 2층으로 되어 있었다. 총인구가 400만인 싱가폴은 보고된 감염인이 1,362명이며 이중 10% 정도는 여자이다. 감염인 중 저소득층이 60%, 상류층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이 없이 연회비, 후원금 단체, 개인모금 등으로 1년에 344,000달러(약 1억8천만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예산은 치료비보다는 저소득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추첨을 통해 약 80명의 감염자에게 600불씩 지급하고 있었다.

리플렛은 4개 국어 즉 중국어, 타밀어(인도어), 말레이어, 영어로 만들어 배포되고 상담은 영어, 중국어 2개 언어로 제공된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담이 이루어지며 전화상담이 1개월에 300건, 내방상담 8~10건, 출장상담을 1주 2회씩 실시한다.

### >> 질병전염병센터(CDC)

사용하는 치료약은 12종이며 CD4검사는 6개월에 한번 실시한다. HIV검사는 국립병원에 의뢰하고 치료비용은 국민연금에서 (4% 정도) 충당하고 있었다. 약값이 없으면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으나 치료비가 너무 고가여서 어떤 경우는 환자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 >> 환자보호센터(Patient Care Center)

환자보호센터(Patient Care Center)의 1병동은 환자의 교육실(비디오 선치, 교육자료)과 식당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방에는 침대 3개가 있어 입산부나 노약자가 주로 휴식하는 곳이었다. 그 외에 여러 개의 방이 있어서 감염인들이 기거하고 흰 책상이나 가구를 수리하거나 작은 채소밭을 가꾸어 무공해 오이를 재배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특히 꽃꽂이 주문이 들어오면 감염인,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들어 수익금 사업에 유용하게 쓰이며 레드 리본을 만들어 저에게 달아주기도 하였다.



싱가폴 민간단체 사무실 'Action for AIDS' 가운데가 필자.

그리고 식당에서는 매일 30~40명 정도의 감염인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우호증진과 레크레이션, 모금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들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 날에 다시 찾아온다.

### >> 맺는 말

태국과 싱가폴에도 AIDS에 대한 두려움과 경멸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홍보와 예방교육을 통해서 점차 동정과 이해로 변화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도 AIDS에 대한 지나친 사회적 편견이 점차 이해로 변화되고, 싱가폴의 단독생병원 CDC센터와 유사한 에이즈환자 전용 병동이 한국에도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